



쇼팽의 음악과 조국애가 살아 숨쉬는 나라

폴란드 (4)



배순덕

차가 달린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넓은 들판이 오가고 멀리 가까이 눈과 밭이 펼쳐져 있다. 팔월의 뜨거운 햇볕아래에 펼쳐진, 노숙기에 접어든 누런 밀밭이 어릴 적에 보았던 보리밭을 연상케 한다. 키 큰 해바라기가 즐지어 지나가고 군데군데 양배추밭이 눈에 들어 왔다. 들판 여기저기에 흐트러진 채 나비처럼 팔랑대는 이름모를 들꽃과 도로변에 흐트러져 있는 산딸기가 어디선가 분듯한 낮익은 풍경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삼십년쯤 전의 우리나라 시골길 같기도 하고, 어쩌면 어머니를 따라 고모집에 가던 그 길목 같기도 하다.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넓은 보리밭이 나타나고 아이들은 몰려 다니며 짬부기를 따먹었다.

고모네 집은 그 들판을 지나 산자락 아래에 있었다. 아버지가 시내에서 양복점을 하셨었는데, 나는 늘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부러웠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 가끔씩 고모집에 가곤 했었다. 키가 크신 고모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시며, 아이구 우리 순덕이 왔구나 하고 반기셨었다. 그리고는 고구마도 쪄 주시고 된장 부치개도 해주셨다. 가을에는 빈 술병을 하나씩 들고 매뚜기를 잡으러 뛰어 다녔었다. 밭을 옮길 때마다 이 눈 저 눈에서 후두둑 날아오르던 살찐 매뚜기떼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한 전경이다.

차는 계속해서 달린다.

안내인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지만 창 밖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도통

듣지 못했는데, 이제 폴란드의 농촌도 우리나라처럼 노령화 추세에 있다는 말에 언뜻 정신이 들었다. 그때 우리는 바르샤바 근교의 집단농장에 가고 있는 중이었다.

폴란드 전 농토의 85%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15%가 국유지인데, 그 국유지에 콜호즈라는 집단농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만 나가려고 하여, 이제 폴란드의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과 힘없는 부녀자만 있는 곳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폴란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고민거리라고 젊은 안내인은 설명한다. 안타깝고 가슴 답답하기는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농장에 도착하니 바니오샤(Baniocha)라는 농장장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800ha의 면적에 40여명의 농부가 일하고 있고, 농부들의 월급은 170달러 정도이고 보너스와,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야근수당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집단농장의 농장장은 자유선거에 의하여 뽑게 된다고 바니오샤가 설명해 줬다. 그는 자신이 선거에 의하여 뽑혔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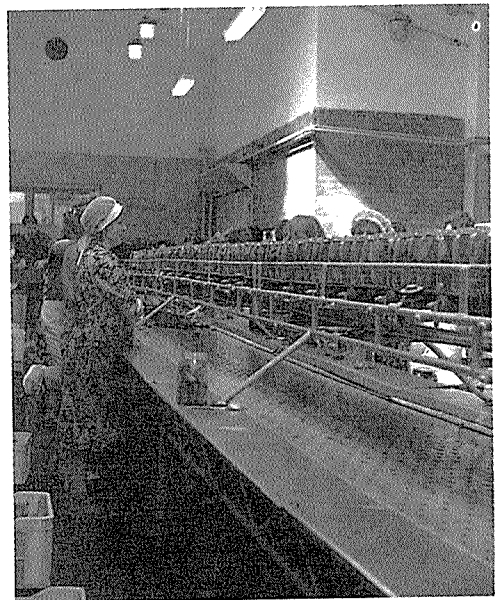
똑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모스크바 집단농장을 방문했을 때의 고압적이고 무뚝뚝한 태도와는 많은 차이가 났다. 우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설명을 하는 사이사이로 곁들여지는 농장장의 약의없는 유모어가 유쾌했다.

농장 안에 있는 오이와 체리의 가공 공

장에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잘 생긴 오이를 골라 한입 베어무니 상큼하게 번져오는 맛과 향기가 우리나라의 오이와 다를 바 없었으나, 길이가 5~10cm 정도로 작았다. 모양은, 길이가 짧은 타인지 등 글둥글해 보였다.

오이를 씻고, 헹구고, 뜨거운 물에 데치고, 병에 넣고 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적으로 진행되었고 머리에 수건을 쓴 아주머니들은 그 과정을 감독하거나 맨 마지막 과정에서 후추와 같은 향신료의 열매와 잎을 병에 넣는 일을 하고 있었다.

공장의 한 쪽에는 그렇게 하여 가공된



▲ 콜호즈 집단 농장의 오이 가공과정. 5~10cm 정도의 작은 오이를 씻고 데치고 병에 넣고 하는 과정이 모두 기계에 의해 진행된다.

오이와 채리가 담긴 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윗옷을 벗어 제낀 남자들이 그것을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었다. 안내를 하던 농장장은 또 한번 그 특유의 몸짓으로, 맛을 보라며 권유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 아하!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할 때 식탁에 몇 조각 올라왔던 바로 그 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양식에 입맛을 잃고 있던 참에 아침식사 때 접시에 담겨진 새콤달콤한 오이 몇 조각이 입안에 저절로 침을 고이게 했던 기억이 난 것이다.

그렇게 가공된 농산물은 주변 유럽국가나 프랑스, 영국 등에 50% 정도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바르샤바 시내에서 소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농장의 생산물이 지금처럼 오이나 상치 등이 주류가 되었던 건 아니었고, 이전에는 꽃을 더 많이 재배했었는데 전량을 모두 구 소련으로 수출했다고 한다. 매년 오십만송이의 꽃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냈고, 그 대금으로는 달러 대신 T.V 부품이나 전자부품 등을 받는 현물매매였다.

그런 방식으로 근 백년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던 현물매매가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구 소련의 내부사정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꽃 뿐만 아니라 집단농장의 잉여농산물도 모두 구 소련으로 수출을 하였으나 루블로 지불받았던 수출대금을 달러로 결제받게 된 뒤부터는 그와 같은 무역역시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그것 역시 외화보유고가 빈약하여 먹는데까지 달러를 쓸 수가 없는 구 소련의 내부사정과 관계



▲ 밀라노바 궁전의 정원. 밀라노바 궁전은 17c말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한 왕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하여 지은, 베르사이유 궁전의 축소형이다.

가 있는 일인듯 했다.

또한 농장의 생산량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정해진 양을 초과하여 생산하였을 때는 각자가 초과한 만큼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때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다파는 물건의 질이 훨씬 좋다고 하여 웃음이 나왔다. 우리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그것은 곧 소유와 경쟁의 개념이 인간의 의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밀라노바 궁전으로 향했다.

밀라노바 궁전은 17세기말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한 왕 소비에스키3세가 지은 여름 별궁으로, 바르샤바의 남쪽 교외에 있었다. 왕은 고국이 그리워 날마다 눈물을

“

**콜호즈 집단 농장의 생산량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정해진 양을 초과하여 생산했을
때는 각자가 초과한 만큼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다고 했다.**

”

홀리는 왕비를 위하여, 왕비가 살았던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을 것을 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크식 궁전과 넓고 아름다운 정원은, 그 후 가난한 왕이 유지할 돈이 없어 귀족에게 팔아넘겼고 1955년까지는 귀족의 사유지가 되었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였을 때 궁전의 소유주였던 귀족은 건물의 한 부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찌가 사용하였다.

후에 독일의 패전으로 급작스럽게 후퇴하게 되었을 때 독일군들은 그 곳에 있는 귀중품들은 가져갈 엄두도 못내고 몸만 겨우 빠져 나가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궁전 안의 귀중품들은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고 독일군이 주둔했던 자리이므로 오히려 종탄의 피해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불행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궁전과 정원과 그 안에 있는 호수를 둘러 보았다. 바로크식 궁전 지붕의 난간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등신대, 혹은 그 이상으로 큰 조각상들이 짝을 늘어서 있고 궁전 앞 넓은 잔디밭에는 분수가 뿌옻게 뿜어져 올라와 한 낮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정원에는 둥그스름한 삼각형모양으

로 잘 다듬어진 커다란 정원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더 안쪽에는 우거진 나무 숲에 둘러싸인 호수가 있었다. 그리고 호수가 여기저기에도 조각상이 서 있었다.

너무 잘 다듬어진 정원의 잔디와 한 종류로만 통일되어 심어져 있는 정원수는, 여러가지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우리나라 창경궁의 정원과 대조적이어서 내겐 오히려 거부감이 일었다. 그것은 문화와 정신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다듬되 다듬지 않은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동양의 정신성과 방금 이발을 한 사람처럼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꾸며져 있어야 하는 서양적인 사고의 차이가 정원 하나를 가꾸는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어느덧 궁전 지붕 위에 비취진 해가 누엿누엿 기울고 있었다. 푸른 나무에 둘러싸여 있던 호수도 햇살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행의 눈빛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바르샤바에서의 숨가쁜 일정이 서서히 매듭지어지고 있었다. ☞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